

내서재 서비스 모델의 콘텐츠 구성요소 비교·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omponent Elements of Contents in My Shelf Service Models

박진희(Jin-Hee Park)**

〈목 차〉

I. 서론	2. 소셜 리딩 서비스 사이트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포털 사이트
2. 선행연구	4. 북로그
II. 이론적 배경	IV. 국내외 내서재 서비스 모델 비교분석
1. 소셜 리딩	1. 내서재 서비스의 콘텐츠 구성요소
2. 북로그	2. 분석 결과
III. 국내외 내서재 서비스 사례	V. 결론
1. 학술정보서비스 기관	

초 록

본 연구는 최근 들어 대학도서관 OPAC에 도입한 서평과 태그를 기반으로 내서재 기능을 소셜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소셜 리딩을 지원하는 9개의 국내외 내서재 서비스 모델에 대한 사례 조사를 실시하여 콘텐츠 구성요소와 시스템 기능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내서재 서비스를 위한 9개의 콘텐츠 정보영역을 도출하였다.

키워드: 소셜 리딩 서비스, 북로그, 내서재, 서평, 태그

ABSTRACT

This study was intended to seek ways to be social of 'My shelf' service functions based on book reviews and tags that have recently been adopted into the academic library OPAC. To that end, this study conducted case examinations of 'My self' services in the local and overseas organizations and the component elements of contents and systems functions were analyzed from the 'My shelf' service models. Thereby 9 contents information areas were set up for 'My shelf' services.

Keywords: Social reading service, Booklog, My shelf, Book reviews, Tag.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5C-H00014).

**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july74@naver.com)

• 접수일: 2013년 5월 19일 • 최초심사일: 2013년 6월 3일 • 최종심사일: 2013년 6월 27일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초고속 인터넷의 일상화, 이용자의 참여·공유·개방을 핵심 가치로 하는 웹 2.0의 등장,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의 디지털 디바이스의 확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의 융합으로 소셜 미디어는 새로운 사회 문화적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 인맥을 확장하고, 기존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콘텐츠를 제작해 공유하고, 정치와 언론에 참여하는 등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는 지식 및 정보, 경험과 감정을 나누고 공유하는 접속 네트워크로 일상화 되어가고 있다. 이처럼 소셜 미디어는 소셜 저널리즘, 소셜 정치, 소셜 교육, 소셜 커머스 등 정치·경제·사회·교육 분야 등 사회 각 부문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는 자체적인 소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계획하는 등 소셜화 경향에 발맞추어 나아가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가 도입되지 않은 많은 데이터 중심 서비스에서도 소셜화가 도입 중이며, 공급자 콘텐츠 중심 서비스에서 사용자 콘텐츠 생산 플랫폼의 제공, 프로필 기능 도입, 콘텐츠의 공유와 배포, 지인 관계 맺기 등 각종 소셜화 기능을 추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¹⁾

기존의 도서 관련 커뮤니티들은 텍스트를 매개로 개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경험을 공유하는 읽기, 즉 소셜 리딩을 지원하기 위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포털 사이트를 비롯하여 온라인 서점에서 운영해 오던 내서재 서비스에 소셜화 기능이 추가되고 있으며, 소셜 리딩을 지향하는 전문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고, 페이스북과 연계되어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소셜 리딩 서비스 사이트는 공통적으로 독자들이 책에 대해 평점을 매기고, 북리뷰를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개인의 관심사에 따라 타인을 통해 도서 추천을 받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를 통해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데이터 중심 서비스의 대표적인 기관인 도서관 역시 웹상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돕고, 정보의 생성, 공유, 유통이 쉬운 SNS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현재 국내 도서관에서는 Open API, RSS,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 기능을 도입해서 도서관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으며, 도서관 웹사이트에 서평, 태그 등을 도입하고 있다. 노동조, 민숙희²⁾의 “대학도서관별 도서

1) 정유진, 배국진,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의 동향과 전망(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2007), p.31.

2) 노동조, 민숙희, “대학도서관 웹사이트 분석을 통한 도서관 2.0 기반 서비스 운영실태 분석,” 정보관리연구, 제 42권, 제4호(2011. 12), pp.195-223.

관 2.0 기반의 서비스 운영 현황” 부록표를 토대로 태그와 이용자 서평 기능이 있는 도서관을 조사한 결과, 3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37개 도서관 중 소셜 리딩 서비스 사이트의 내서재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OPAC의 MyLibrary에서 서평과 태그를 관리할 수 있는 도서관은 15개 기관으로 조사되었다. 도서관 웹페이지에서 다른 이용자가 작성한 서평과 태그는 각 도서의 상세검색 결과 화면에서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개인화 서비스 공간인 MyLibrary에서는 이용자 본인이 작성한 서평과 태그만을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소셜 리딩 서비스 사이트와 도서관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면, 공통점으로는 도서를 매개로 한 서비스 커뮤니티라는 점이며 도서관이 최근 들어 적용하기 시작한 태그와 서평을 기반으로 소셜 리딩을 지원한다는 점 그리고 내서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 계층이나 이용자수, 이용자가 참여하여 작성하는 태그와 서평의 수량적인 측면에서 볼 때, 도서관의 경우 이용자의 참여도가 현저히 떨어지며, 소셜 리딩 서비스의 내서재 서비스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OPAC의 일부인 My Library의 내서재는 소셜화 기능이 없이 단지 개인화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결국 이용자들은 OPAC을 도서관에 소장된 정보를 검색, 결과를 확인하고, 공지사항을 전달받고, 추천 도서 리스트 정보를 살펴볼 수 있는 공간으로 그리고 내서재 서비스를 개인적인 관심목록을 저장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소셜 리딩 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책에 대해 리뷰하고, 콘텐츠를 작성, 공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웹사이트의 OPAC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는 서평, 태그를 기반으로 하여 내서재 기능을 소셜화할 수 있는 방안 즉, 다른 이용자가 작성한 서평과 태그를 단일 웹페이지에서 검색하고, 관심 도서에 대한 이용들간의 관계를 확장시켜 도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소셜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9개의 국내외 내서재 서비스 모델에 대한 사례 조사를 실시하여, 콘텐츠 구성요소와 시스템 기능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국내외 기관의 내서재 서비스 사례 분석에서 학술정보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학술정보기관과 국내외 대표적인 온라인서점의 북로그 및 소셜 리딩 서비스 사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이다.

2. 선행연구

본 연구와 같이 내서재 서비스 모델의 콘텐츠를 비교 분석한 연구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온라인 서재 시스템 설계와 소셜 리딩에 관한 연구, 도서관 웹사이트를 독서 활동 지원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제안하고 있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4권 제2호)

정보 공유를 위한 온라인 서재 시스템의 설계와 관련하여 박윤영, 변혜원은 MVC(Model-View-Controller) 모델에 기반하여 도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서재 시스템을 설계하고,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다음(Daum)에서 제공하는 도서 검색 OpenAPI를 이용하여 도서를 검색하고, 온라인 서재에 관심 도서를 담아서 관리하고, 자유롭게 도서에 대한 리뷰와 인용구를 작성하여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³⁾

배경제는 도서관에서의 SNS를 통해 이용자들이 콘텐츠에 대해 깊은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하면, 서로에 대한 공통 관심사를 확인하고 싶어 하게 되고, 결국 이는 공통 관심사를 가진 이용자 간의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제시하며, LG 상남도서관의 소셜 네트워크를 적용한 ELIT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도서관이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자가 열람하는 시점부터 이용자 사이에서 관심자료를 공유하는 단계까지 순환하는 구조로 노하우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 간의 관계 형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있으며 내 서류 가방을 통해 개인 산출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 있다.⁴⁾

소셜 리딩과 관련해서 류영호는 전자책이라는 새로운 텍스트의 등장과 하이퍼텍스트, 인터넷, 게임 등의 새로운 형태의 글쓰기 방식들이 등장하면서 대중 독자들의 독서 스타일에 변화가 생겼으며, 새로운 읽기 습관의 대표적인 방법론이 소셜 리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마존, 코보(Kobo), 굿리즈(Goodreads) 등과 같은 해외 소셜 리딩 서비스를 소개하고, 출판과 독서의 위기 시대로 표현되는 지금 소셜 리딩에 주목하여 저자와 출판사, 유통사, 독자가 책을 통해 선순환할 수 있는 독서 생태계를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⁵⁾

Mennella는 소셜 리딩의 정의와 유형을 설명하고, 도서관에서 소셜 리딩 경험을 장려하고 조성하기 위한 3단계로서 소셜 리딩 경험이 물리적 도서관을 벗어나도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소셜 네트워크를 개발, 이용자들이 물리적 도서관과 도서관 웹사이트나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북클럽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장려, 모든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도서관에서 소셜 리딩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사서들의 참여와 소셜 리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웹 2.0 도구를 채택, 개발하려는 사서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⁶⁾

도서관 웹사이트를 독서지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제안하고 있는 연구와 관련해서 이경민은 대학도서관에서의 대학생 독서지도 방안으로 교육시스템에서 추천도서 읽기, 독서토론에 중

3) 박윤영, 박혜원, “프레임워크 기반 온라인 서재 시스템의 효율적인 구현 및 품질 평가,”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13권, 제5호(2010. 5), pp.627-640.

4) 배경제, “도서관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도서관문화, 제46권, 제12호(2009. 12), pp.46-52.

5) 류영호, “세계 전자책 시장 읽기 - 이제 소셜 리딩(Social Reading)에 주목하자,” 2013, <<http://bookerslab.tistory.com/271>> [인용 2013. 4. 1].

6) Allison Mennella, What is “social Reading” and why should libraries care?, 2011, <<http://tametheweb.com/2011/06/14/what-is-%E2%80%9Csocial-reading%E2%80%9D-and-why-should-libraries-care-a-ttw-guest-post-by-allison-mennella/>> [cited 2013. 2. 12].

점을 두는 독서행사, 글쓰기와 병행하는 독서교육, 독서지도를 위한 사서들의 독서력 증진을 제시하며, 소셜 네트워크나 도서관 홈페이지는 이용자와 사서의 만남의 공간인 동시에 책을 소개하고, 독서지도를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므로 사서는 사이버 공간에서도 대학생들의 체계적인 독서를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⁷⁾

최상희는 '성인 이용자를 위한 온라인 독서지원 서비스에 관한 연구'에서 사서의 복리뷰는 도서관과 도서관 이용자가 소통하는 장이 될 수 있으며, 이용자들의 복리뷰는 독자들간의 소통의 장을 공공도서관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책을 중심으로 하는 소통의 장을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공공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읽고 싶은 책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소장자료를 대출하는 단계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⁸⁾

II. 이론적 배경

1. 소셜 리딩

류영호⁹⁾는 “소셜 리딩은 책을 읽기 전이나 후에 책을 둘러싼 정보를 독자와 독자, 저자와 독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상호간의 정보교류가 이루어지는 읽기”라고 정의하고 있다. Mennella¹⁰⁾는 “소셜 리딩은 자신이 읽은 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길 원하고, 타인의 생각과 아이디어에 관해 피드백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한다”고 말하면서 소셜 리딩의 네 가지 주요한 특성을 통해 “소셜 리딩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혼자서 텍스트를 읽을 때는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생각과 아이디어를 탐구하는 하나의 방식이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Allison이 제시한 소셜 리딩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셜 리딩은 매우 공적인 활동이다. 소셜 리딩은 둘 이상의 사람들이 직접 만나거나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해 텍스트에 관해 상호작용할 때 성립한다. 둘째, 소셜 리딩은 독자의 경험을 확장시킨다. 독자로 하여금 텍스트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결론을 내리고, 생각을 요약하고, 질문하도록 장려한다. 셋째, 소셜 리딩을 통해 독자는 텍스트를 더 잘 기억할 수 있게 된다. 소셜 리딩은 두 명 이상의 새로운 친구들이 만나 대화의 화제로서 활용될 수

7) 이경민, “대학도서관에서 대학생 독서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3권, 제4호(2012. 12), pp.161-181.

8) 최성희, “성인 이용자를 위한 온라인 독서지원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0권, 제4호(2009. 12), pp.61-80.

9) 류영호, 전게서.

10) Allison Mennella, op. cit.

있고, 소셜 매체 플랫폼을 통해 리뷰, 추천하고,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커뮤니티 내에서 공유 관심사가 되도록 하는 등과 같은 온라인 활용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다. 넷째, 소셜 리딩의 중요한 측면은 이용자가 부가한 콘텐츠이다.

이와 같은 정의를 종합해 보면, 소셜 리딩에서 소셜은 단순히 '사회적'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넘어 참여, 개방, 공유, 협업 등을 포괄하는 개념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셜 리딩은 텍스트를 매개로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경험을 공유하는 읽기, 참여·소통·공유를 기반으로 한 읽기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소셜 리딩의 유형은 오프라인 상에서의 북클럽과 온라인 북클럽, 그리고 최근의 ebook reader를 통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전통적인 북클럽으로 사람들은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특정 도서에 대해 깊이 있게 토론한다. 두 번째 유형은 온라인 북클럽으로 사람들은 온라인상에서 책을 중심으로 모여 관계를 맺고,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세 번째 유형은 가장 최근의 소셜 리딩의 유형으로 ebook reader를 통해서 형성된다.¹¹⁾ 이 새로운 유형은 디지털 텍스트를 읽고 난 이후에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기 보다는 읽는 도중에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또한 종이책 읽기와 달리 전자책 읽기의 경우에는 이미 책을 읽었거나 읽고 있는 다른 독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책 전체가 아닌 한 문장 단위로 미시적인 수준까지 심화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¹²⁾ 예를 들어 아마존 킨들의 전자책은 책 본문 중에 점선으로 밑줄 쳐진 'Popular Highlight'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얼마나 많은 독자들이 이 문장에 하이라이트를 했는지 알 수 있다. 이처럼 기술의 발달로 인해 책의 단어나 구절과 같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짧은 텍스트 단위 내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졌다.

최근 소셜 리딩을 지향하는 전문웹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셜 리딩 사이트들은 개인서재를 제공하고, 책에 대한 개인적인 리뷰와 감상을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와 이메일 등을 통해 공유할 수 있게 하며 독서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북로그

북로그(Booklog)는 북(Book)과 블로그(Blog)의 합성어로 온라인 서점이 회원들에게 도입한 블로그 서비스를 말한다. 개인의 신변잡기를 풀어놓는 블로그와는 달리 책을 읽은 후의 감상이나 도서 서평, 그리고 책에 얽힌 이야기를 담은 것을 특징으로 한다. 북로그는 독서일기와 도서 서평이라는 특성 때문에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¹³⁾

11) Ibid.

12) 류영호, 전계서.

13) 이경화, 북로그 서비스가 온라인 구전효과에 미치는 영향 -북로그 유형과 도서 분야별 관여도를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출판정보, 2005), p.13.

2003년 8월 국내 온라인 서점 가운데 알라딘이 최초로 기존에 운영하던 마이리뷰, 마이리스트 등을 블로그와 결합시켜 인터넷상에 내서재를 꾸미고, 서평, 주제별 도서 리스트, 다양한 책 정보를 담은 '나의 서재'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인터넷 교보문고의 북멘토와 예스24의 맛있는 커뮤니티 잼, 인터파크도서의 북피니언 등도 북로그 서비스를 시행하였다. 최근에 교보문고는 기존의 상품 리뷰 결과에 많은 초점을 맞춘 북로그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1인 미디어 및 교류를 통한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개편하였다. 알라딘 서재 역시 기존의 글 위주의 공간이었던 북로그에서 소셜을 지향하는 개인 서재를 도입하여 소셜북스를 추가로 서비스하고 있다.

국외 온라인 서점인 아마존은 2008년 온라인 도서 커뮤니티인 셸퍼리(Shelfari)를 인수하여 내서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3년 3월 28일 소셜 리딩 사이트 굿리즈(Goodreads)를 인수해서 서비스를 확장하려고 준비 중이다. 셸퍼리는 구글의 오픈소셜 플랫폼으로 구성된 온라인 도서 추천사이트이며 굿리즈 역시 셸퍼리와 동일하게 책을 추천해주거나 리뷰할 수 있는 서적 중심의 소셜 네트워크이다. 셸퍼리는 아마존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이용할 수 있는 반면에 굿리즈는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등 이미 사용하고 있는 SNS 계정으로도 굿리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굿리즈를 통해 도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용자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살펴본 것처럼 국내 온라인 서점의 내서재 서비스는 해당 웹사이트의 MyPage를 통해 리뷰와 평점 매기기 등으로 구성된 내서재 서비스에서 웹 2.0 기술을 도입한 블로그 형태의 북로그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외 서점의 경우는 오픈 소셜 플랫폼이나 SNS를 인수하여 이를 통해 내서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Ⅲ. 국내외 내서재 서비스 사례

본 절에서는 국내외 내서재 서비스 현황 및 콘텐츠 구성요소를 분석하기 위해 내서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외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으로는 학술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교육학술정보원의 RISS, OCLC의 WorldCat, 소셜 리딩 전문 서비스 사이트인 UserStory Book, 포털 사이트 Naver의 내서재, Google books, 온라인 서점의 북로그인 인터파크의 북피니언, 교보문고의 북로그, 알라딘의 소셜 북스토어, 아마존의 셸퍼리 등 9개 기관의 내서재 서비스 모델을 선정하였다. 선정 기준으로는 소셜 리딩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정보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상업기관 사이트와 도서관 웹사이트와 유사 기능을 하는 학술정보서비스 기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Librarything 역시 현재는 내서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소셜 리딩보다는 도서 서지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1. 학술정보서비스 기관

1) RISS

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의 내서재 서비스는 RISS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공개 외부자료를 쉽게 모으고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내서재는 이용자 자신이 만든 기본적인 '내책장'과 '관심책장', '원문메모장'과 '내저작물관리'로 구성되어 있다.

내책장은 RISS에서 검색된 자료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내서재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며 관심책장은 RISS를 이용하는 다른 이용자들이 생성한 책장을 같이 공유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책장 생성시 공개로 설정한 책장 가운데서 다른 이용자들이 관심책장에 등록할 수 있다. 원문메모장은 PDF 형식의 자료에 메모를 붙이는 기능으로 자료를 열람하면서 메모를 붙여두거나 메모와 원문을 함께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자료를 내서재에 담은 후에 이용할 수 있다. 내저작물관리는 RISS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자신의 저작물을 등록하여 한 곳에서 볼 수 있으며, 저작물이 활용되고 있는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내서재에 저장된 학술정보의 서지정보는 메일전송, 인쇄, Excel저장, Text저장, EndNote내보내기, RefWorks 내보내기 등을 선택하여 내보낼 수 있을 뿐, 외부 서비스와 공유할 수는 없다.

2) WorldCat

WorldCat은 OCLC가 2007년부터 보급한 WorldCat Local이라는 차세대 도서관 목록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WorldCat 회원 도서관만이 아닌 전 세계의 모든 이용자들이 모든 레코드들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웹사이트이다. WorldCat의 메인화면은 WorldCat 도구사용, 참고 문헌 구축하기, 가장 유명한 도서관, 가장 인기 있는 태그, 최근 리뷰, 최근 업데이트된 목록, My WorldCat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자들은 검색결과와 상세정보 화면에서 해당 검색결과를 자신이 설정한 목록에 추가할 수 있으며, 태그와 리뷰, 평점 매기기를 입력하여 My Worldcat에 저장할 수 있다. My Worldcat은 즐겨찾기 도서관, 검색결과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내 목록, 다른 WorldCat 사용자가 만든 관심목록을 볼 수 있는 '보고 있는 목록,' 검색결과를 저장한 검색어, 관심분야, 태그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각각의 기능들은 별도의 페이지 이동 없이 상세내용으로 링크되며, 편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소셜 리딩 서비스 사이트

유저스토리랩(UserStory Lab)은 유저스토리 북(UserStory Book)을 통해 온라인 서재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저스토리 북은 이용자가 개인의 온라인 서재를 만들어 타 이용자와 공

유할 수 있다. 서재의 유형은 크게 개인서재, 그룹서재, 테마서재, 광장으로 나뉜다.

유저스토리 북에서는 알라딘, 아마존, 아마존 재팬 등 국내외의 온라인서점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통해서 책들을 검색해준다. 이용자는 검색어창에 찾자 하는 책의 정보 즉, 제목, 저자, 역자, 장르, ISBN 등을 입력하여 검색결과 자료를 개인서재에 추가할 수 있다. 추가되는 책은 읽은 상태와 소유상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읽은 상태는 '읽고 있는 책, 읽은 책, 읽을 책'으로, 소유상태는 '가지고 있는 책, 빌린 책, 갖고 싶은 책, 빌려준 책'으로 나뉜다. 또한 책목록을 입력하여 카테고리를 만들어 관리할 수 있다. 책에 대한 평점과 빌려줄 수 있는 책의 여부, 메모, 구입일자/읽은 기간, 관심테마에 추천하기 등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유저스토리 북은 이용자가 개인서재에 등록된 책과 별점을 기반으로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책을 추천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독서 통계량을 통해 구입한 책의 수량과 한달 평균별 구매금액, 좋아하는 장르를 그래프로 제시해 주고 있다.

그룹서재는 카페와 같은 커뮤니티 서비스처럼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좋아하는 책을 담고,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그룹서재의 카테고리는 '함께 읽으면 좋을 책, 읽고 있는 책, 가지고 있는 책, 빌려준 책, 갖고 싶은 책, 빌려줄 수 있는 책'으로 나뉜다. 그룹서재에 올라온 게시물은 별도의 페이지 이동 없이 내 개인서재의 업데이트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룹서재를 개설하고,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거나 Twitter 친구에게 초대 메시지를 보내 그룹서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테마서재는 특정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추천하면 좋을 책을 모아서 볼 수 있게 하는 서비스로서 그룹서재와 달리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책을 추가할 수 있다.

광장은 특정 책에 대해 유저스토리 북의 이용자들이 남긴 메모, 밑줄 그은 문장 등 다양한 정보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 외에도 북마크릿을 이용하여 YES24, 알라딘, 인터파크 도서, 교보문고와 같은 온라인 서점을 보다가 마음에 드는 책을 쉽게 추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트위터와 미투데이, 페이스북 등의 외부서비스와 연동되어 UserStory Book에 새로운 책을 등록하거나, 그룹에 등록된 책을 UserStory Book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공유할 수 있다.

3. 포털 사이트

네이버 서재는 네이버 내에서 구매하거나 N스토어에서 관심 추가한 영화, 방송, 뮤직, 일반도서, 장르소설, 만화 등을 한 번에 모아보고 재생할 수 있는 웹 서비스이다. 그러나 내서재는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수 없고, 로그인한 사용자 개인만이 볼 수 있다.

구글 북스(Google Books)에서는 원하는 도서를 선택하여 서평작성, 평점 매기기, 검색할 수 있

는 내 서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글 북스에서 검색한 도서 결과 페이지에 표시되는 '내 서재에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내 서재에 저장된다. 내 서재는 내서재와 내기록으로 구분되며, 내서재는 기본적으로 '내 Google Play 도서, 즐겨찾기, 읽고 있는 도서, 읽을 도서, 읽은 도서, 사용자 추천도서'로 카테고리되어 있으며 새서가를 추가할 수 있다. 각 서가들은 공개, 비공개로 선택하여 설정할 수 있으며, 공개로 표시된 서가는 다른 이용자와 공유할 수 있다. 내 기록은 구입한 도서, 리뷰한 도서, 최근에 본 도서, 검색기록 등으로 카테고리가 설정되어 있다.

검색결과 도서에 관해 서평 쓰기와 평점을 작성할 수 있으며 타 이용자가 작성한 서평과 평점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비공개 서가를 제외하고, 내가 작성한 서평과 평점은 구글 북스에서 공개적으로 표시된다.

4. 북로그

인터파크, 교보문고, 알리딘 등의 국내 온라인 서점은 북로그 서비스를 통해 내서재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1) 인터파크의 북피니언

인터파크 도서에서는 북피니언이라는 블로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북피니언은 블로그와 북다이어리, 나의 테마광장, 미니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블로그의 왼쪽 화면에는 글을 등록할 때 설정한 카테고리나 태그가 제시된다. 북다이어리는 일상을 기록하는 다이어리처럼 책에 대한 기억을 기록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책을 등록할 때는 인터파크도서에 등록되지 않은 책도 직접 등록이 가능하며, 원하는 책을 검색해서 분류, 등록일, 상태(구매했던 책, 선물한 책, 선물 받은 책, 기타), 미니로그, 내 평가를 선택할 수 있다. 상태 설정을 통해 구입한 책, 선물한 책 등과 같이 나만의 책 목록을 관리할 수 있고, 책에 대한 진도 '읽을 예정, 읽는 중, 다 읽음' 등의 독서상태를 알 수 있다. 미니로그는 책에 대한 간단한 메모, 좋은 글귀, 생각을 기록할 수 있는 공간이다. 리뷰는 등록된 책에 대해 이용자가 직접 작성한 것과 다른 사람이 작성한 리뷰를 모아 보여준다. 북피니언의 왼쪽 화면에는 분류와 책 달력, 통계가 있어서 이용자가 설정한 분류별 도서를 확인할 수 있고, 연월별로 읽은 책의 수를 알 수 있으며 분류별·장르별 통계 등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다.

나의 테마광장은 특정주제에 관한 추천도서 목록을 만들어 관리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용자가 추천한 책에 대해 다른 이용자들의 공감도 받을 수 있고, 의견도 들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랜덤 북피니언과 친구북피니언의 북다이어리로 이동할 수 있는 버튼이 있다. 랜덤북피니언은 친구북피니언처럼 친구를 맺은 북피니언들의 목록이 아닌, 클릭할 때마다 임의로 선택된 다양한 북피니언에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랜덤북피니언을 둘러보다가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친구 신청을 할 수 있다.

2) 교보문고의 블로그

교보문고의 블로그는 기존의 상품 리뷰 결과에 많은 초점을 맞춘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1인 미디어 및 교류를 통한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개편되었다. 이를 위해 서로이웃, 위젯, 스킨뱅크, 보관함, 저자와의 대화, 포스팅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로이웃은 이웃신청을 통해 그룹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서비스이며, 저자와의 대화는 블로그 속 책들에 대해 궁금할 때 책의 저자가 직접 답변해 주는 서비스로서 해당 책의 저자 및 출판사의 블로그를 통해 답변을 확인 할 수 있다.

교보문고의 블로그는 인터파크의 북피니언과 마찬가지로 왼쪽 화면에 카테고리, 책속의 한 문장, 추천도서, 이웃블로그, My tag 등이 제시되며, 중앙에 이용자가 포스팅한 글의 목록이 제시된다.

교보문고는 이와 같은 블로그 외에 북클럽을 통해 다양한 공감대를 가진 이용자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3) 알라딘의 소셜 북스토어

알라딘은 알라딘 서재와 소셜 북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 알라딘 서재는 이용자만의 서재로서 서평이나 짧은 40자평을 기록하고, 공개설정을 통해 다른 이용자와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알라딘 서재가 블로그 글 위주의 공간이었던 반면에 소셜 북스토어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소셜을 지향하는 개인 서재이다.

소셜 북스토어는 알라딘 서재와 동기화되어, 내서재에서 공개로 쓴 모든 글에 담긴 도서, 음반, DVD 등의 상품을 기반으로 개인의 북스토어가 생성된다. 따라서 소셜 북스토어에서도 내서재의 100자평, 마이리뷰, 마이페이지, 리스트, 포토리뷰, 밑줄 긋기 등에 담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알라딘에서는 이용자가 추천하는 책, 음반, DVD를 책장에 등록하면, 알라딘 추천 마법사가 이용자의 취향과 비슷한 북스토어를 추천하고, 공개한 즐겨찾는 북스토어 리스트를 통해 이용자와 비슷한 취향의 북스토어를 방문할 수 있다. 또한 진열된 책에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평점, 추천, 100자평 등을 입력할 수 있으며, 해당 책과 관련된 사람들의 서평 목록과 관련된 책 및 관련 태그를 확인할 수 있다.

4) 아마존의 셸퍼리

셸퍼리는 2008년 아마존이 인수한 온라인 도서 커뮤니티로서, 아마존 계정으로 이용할 수 있다.

셀퍼리는 도서 추천과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서 추천은 테마별 도서, 인기도서, 최근 수정된 내용별·주제별·다양한 시리즈별 도서, 셀퍼리에 등록된 상위 200개의 태그 목록 및 저자별 목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에 커뮤니티는 팔로워(follower)들과 가장 활발하게 교류하는 이용자, 가장 활동적인 그룹, 분야별 그룹 등에 관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다른 셀퍼리 이용자를 팔로잉(following)하고, 팔로워 친구들의 내서재를 방문해서 그들이 선정한 책들을 둘러 볼 수 있다. 그리고 주제별·지역별·도서유형별로 그룹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이용자들은 셀퍼리의 내서재를 통해 '읽고 싶은 책, 읽고 있는 책, 이미 읽은 책, 선호하는 책, 소유한 책, 위시리스트' 등으로 서재를 만들어 도서를 관리할 수 있으며, 읽은 책에 대한 평점을 매기고, 태깅하고, 다른 이용자와 해당 책에 대한 평가도 공유할 수 있다. 셀퍼리의 내서재는 이용자가 원하는 내용을 포스팅할 수 있는 Public Overview와 서재(Shelf), 팔로잉 친구 및 팔로워 친구들의 리스트로 구성된 친구들(Friends), 최근 활동 히스토리를 담고 있는 Activity, 가입한 그룹, 편집활동 이력을 공개하는 Edits, 기타(공개노트, "Bests of" Lists, 독서현황, 독서목표량, 서평)으로 구성되어 있다.

셀퍼리의 이용자들은 위키 기능을 이용해서 모든 도서의 저자, 표제, 출판일, 목차, 첫 번째 문장, 시리즈 등을 수정할 수 있다. 일부 변경을 위해서는 셀퍼리의 공식적인 그룹 'Librarians'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용자들은 장황하게 제시되어 있는 도서 정보들을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고, 목록에서 검색되지 않은 새로운 표제들도 추가할 수 있다. 이러한 편집활동 이력은 Edits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노트는 다른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며, "Bests of" Lists는 해당 내서재 이용자가 선정한 도서 리스트와 팔로워들의 리스트 및 추천받은 리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독서현황에서 연도별 독서량과 주제분야별 독서 통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독서목표량에서는 설정한 독서량 목표 대비 달성비율을 볼 수 있다. 서평은 서평작성일자·저자·평점·투표 및 댓글수로 정렬하여 볼 수 있다.

IV. 국내외 내서재 서비스 모델 비교분석

1. 내서재 서비스의 콘텐츠 구성요소

본 연구에서 선정된 내서재 서비스 모델의 콘텐츠 특성을 알아보기로 내서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웹사이트의 내용분석을 통해 카테고리화 해당 카테고리별 콘텐츠 구성요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국내외 내서재 서비스 모델의 카테고리 콘텐츠 구성현황

기관명	서비스명	카테고리 콘텐츠 구성요소
RISS	내서재	[내책장 홈(내책장 목록, 나의 관심책장 목록), (디렉토리 1차, 2차, 3차 분류), (최근 한달간 RISS 인기책장), (최근 한달간 RISS 신규책장), [내책장], [관심책장], [원문메모장], [내서작물관리]
WorldCat	My WorldCat	[Profile], [Favorite Libraries], [Lists], [List Watching], [Saved Searches], [Reviews], [Interests], [Tags]
유저 스토리랩	유저 스토리북	[개인정보(방명록, 독서통계, 책추천)], [업데이트(이용자의 업데이트), (친구업데이트), (대화업데이트)], [서재], [서재분류(모든책, 빌려줄 수 있는 책), (메모가 있는 책, 읽고 있는 책), (읽은 책), (읽을 책), (가지고 있는 책), (빌린 책), (갖고 싶은 책), (빌려준 책)], [내가 만든 책 목록], [관심테마], [참여그룹] [팔로워] [팔로잉]
Google books	내서재	[내서재(내 Google Play 도서), (즐거찾기), (읽고 있는 도서), (읽을 도서), (읽은 도서), (사용자 추천 도서)], [내기록(구입한 도서), (리뷰한 도서), (최근에 본 도서), (검색기록)], [등록한 책 목록 책장]
네이버	내서재	[내서재(영화), (방송), (뮤직), (만화), (일반도서), (장르소셜), (구매), (관심), (최근재생), (선물), (휴지통)] [N스토어 바로가기] [책장]
인터파크 도서	마이 북피니언	[프로필(쪽지발송, 친구신청)], [분류(구매한 책), (선물한 책), (선물 받은 책), (기타)], [이용후기/한줄평], [책달력], [통계(기본설정), (책 분야별 통계), (독서활동)], [등록한 책 목록], [최근 업데이트], [다녀간 북피니언], [방명록], [친구 북피니언]
교보문고	북로그	[사용자명(프로필, 쪽지, 이웃추가)], [Category(스토리), (책속의 한 문장)] [추천도서], [이웃북로그(이웃), (서로 이웃)], [My Tag], [목록열기]
알라딘	소셜 북스토어	[사용자 대표상품], [100자평], [마이리뷰], [마이페이지], [마이 리스트], [포토리뷰], [미줄긋기], [프로필(서재보기), (즐거찾기), (방명록)], [~즐거찾는 사람들], [~남께 추천한 북스토어]
아마존	셀퍼리	[Public Overview], [Shelf(displaying), (All books((Plans to read, Reading, Read, Favorites, Owns, Wish list, Books in common))], [Friends], [Activity], [Groups], [Edits], [More(Public Notes), ("Best of"Lists), (Reading Stats), (Reading Goals), (Reviews)]

* [] - 메인 카테고리, () - 서브 카테고리

내서재 서비스 기관마다 같은 콘텐츠에 대해 다른 레이블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를 16개의 카테고리 항목으로 나누어 정리, 분류 하였다(〈표 2〉 참조).

〈표 2〉 서비스 기능별 카테고리 콘텐츠 구성요소 현황

서비스 기능별 카테고리	카테고리 콘텐츠 구성요소
기본책장 및 카테고리	[내책장]
	[lists]
	[서재분류(모든책, 빌려줄 수 있는 책), (메모가 있는 책, 읽고 있는 책), (읽은 책), (읽을 책), (가지고 있는 책), (빌린 책), (갖고 싶은 책), (빌려준 책)]
	[내서재(내 Google Play 도서), (즐거찾기), (읽고 있는 도서), (읽을 도서), (읽은 도서), (사용자 추천 도서)]
	[내서재(영화), (방송), (뮤직), (만화), (일반도서), (장르소셜), (구매), (관심), (최근재생), (선물), (휴지통)]
	[분류(구매한 책), (선물한 책), (선물 받은 책), (기타)]
	[Category(스토리), (책속의 한 문장)]
[서재]	

기본책장 및 카테고리	[Shelf(All books((Plans to read, Reading, Read, Favorites, Owns, Wish list, Books in common)))]
책장 이미지	[~의 서재], [등록한 책 목록 책장], [책장], [목록열기], [사용자 대표상품], [Shelf(displaying)]
태그	[My tag], [Tags]
서평	[(리뷰한 도서), [reviews], [100자평], [마이페이퍼], [포토리뷰], [마이리스트], (Reviews), [이용후기/한줄평]
밑줄긋기	[책 속의 한 문장], [밑줄긋기]
관심서재	[관심책장], [Lists Watching], [이웃 북로그(이웃, 서로 이웃)], [친구 북피니언]
테마별 추천 도서	[관심테마], ["Best of" lists], [사용자 추천도서]
프로필	[개인정보], [Profile], [사용자명(profile)], [프로필]
관심분야	[interests], [관심테마]
검색결과저장	[내기록(검색기록)], [Saved Searches], (즐거찾기)
최근활동	[최근에 본 도서], [Activity]
방명록	(Public Notes), [다녀간 북피니언], [방명록], (방명록)
업데이트 정보	(최근 한달간 RISS 인기책장), (최근 한달간 RISS 신규책장), [업데이트(이용자의 업데이트), (친구업데이트), (대화 업데이트)], [최근 업데이트]
팔로워, 팔로잉	[팔로워], [팔로잉], (친구신청), (이웃추가), [~즐거찾는 사람들], [Friends]
통계	(독서통계), (Reading Stats), (Reading Goals), [통계(기본설정), (책 분야별 통계), (독서활동)]
그룹 커뮤니티	[참여그룹], [Groups]

〈표 2〉의 정보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해당 서비스 모델별로 가지고 있는 시스템 기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기능에는 자동 알고리즘에 의한 추천도서 서비스 기능, 서비스 기관 외의 자료를 등록할 수 있는 북마크릿 기능, 카카오톡이나 미투데이 같은 SNS 서비스를 통한 외부서비스와의 연동기능 등이 있다.

〈표 2〉의 서비스 내용별 카테고리화 모델별 시스템 기능을 종합해서 기본책장, 기본 카테고리, 책장 이미지, 태그, 서평, 밑줄 그은 문장, 관심서재, 테마별 추천도서, 프로필, 관심분야, 검색 결과 저장, 최근활동, 방명록, 업데이트 정보, 팔로워/팔로잉, 통계, 그룹 커뮤니티, 편집, 자동 알고리즘에 의한 추천도서 서비스, 북마크릿, 외부 서비스와의 연동 총 21개의 정보항목으로 각 서비스 기관의 빈도수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빈도분석 결과, 21개 항목 가운데 가장 많은 정보내용 항목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유저스토리 랩으로 14개 항목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인터파크 도서와 아마존이 11개 항목, 교보문고 10개 항목, 알라딘 9개 항목, Worldcat 7개 항목, 구글북스 6개 항목, RISS와 네이버는 3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보요소에 따라 살펴보면, 기본책장은 9개 기관(100%) 모두 제공하고 있으며, 기본책장의 카테고리가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기관은 RISS와 Worldcat, 알라딘 3곳을 제외한 6개 기관(66.7%)으로 나타났다. 책장 이미지 역시 RISS와 Worldcat을 제외한 7개 기관(77.8%)에서 제공하고 있었다. 서평은 네이버를 제외하고 책장에 담을 도서를 입력할 때 작성할 수 있으나,

서평을 개별적인 카테고리로 설정하여 작성한 서평만을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는 기관은 6개 기관(66.7%)으로 나타났다. 프로필과 팔로워·팔로잉 항목은 5개 기관(55.6%)에서 제공하고 있었다. 테마별 추천도서, 프로필, 업데이트 정보는 4개 기관(44.4%), 업데이트 정보, 통계, 자동 알고리즘에 따른 추천서비스는 3개 기관(33.3%), 밑줄 그은 문장, 관심분야, 검색결과 저장, 최근활동, 그룹 커뮤니티 지원과 북마크릿은 2개 기관(22.2%), 편집과 외부서비스 연동은 1개 기관(11.1%)에서 제공하고 있었다.

<표 3> 내서재 서비스 정보내용 제공현황

정보내용 기관명	기본책장	기본카테고리	책장이미지	태그	서평	밑줄긋기	관심서재	테마별추천도서	프로필	관심분야	검색결과저장	최근활동	방명록	업데이트정보	팔로워 팔로잉	통계	그룹커뮤니티	편집	추천도서서비스	북마크릿	외부서비스연동	
RISS	○						○							○								
WorldCat	○			○	○		○		○	○	○											
유저 스토리 랩	○	○	○					○	○	○			○	○	○	○	○		○	○	○	○
Google books	○	○	○		○						○	○										
네이버	○	○	○											○	○	○	○					○
인터파크 도서	○	○	○		○		○		○													
교보 문고	○	○	○	○	○	○	○	○	○						○							○
알라딘	○		○		○	○		○	○				○		○							○
아마존	○	○	○		○			○				○	○		○	○	○	○				
합계	9	6	7	2	6	2	4	4	5	2	2	2	4	3	5	3	2	1	3	2		1

2. 분석 결과

국내의 내서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카테고리, 콘텐츠 정보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 내서재 서비스를 위한 콘텐츠 영역은 개인서재, 다른 사용자 서재, 테마별 서재, 그룹서재, 개인정보, 업데이트 공지, 공유자 정보, 시스템 기능으로 나뉜다. 각 영역별로 분석결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서재 영역은 사용자의 기본 서재를 의미한다. 개인서재의 카테고리는 RISS와 WorldCat, 알라딘에서는 제공하고 있지 않았으나 그 외 6개 기관에서는 모든 책, 빌려줄 수 있는 책, 메모가 있는 책, 읽고 있는 책, 읽은 책, 읽을 책, 가지고 있는 책, 빌린 책, 갖고 싶은 책 등으로

분류되어 있어 독서현황을 파악하거나 소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었다.

개인서재에 등록할 도서에 대해 RISS를 제외한 8개 기관에서 서평, 별점을 입력하고 있었으며 유저스토리 북, 인터파크, 교보문고, 알라딘은 긴 서평에 부담을 느끼는 사용자를 위해 밑줄 그은 문장 쓰기, 한줄평, 밑줄긋기, 책 속의 한 문장, 100자평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선택사항을 제공하고 있었다. 한편, 서평을 개별적인 카테고리로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WorldCat과 구글북스, 인터파크 도서, 교보문고, 알라딘, 아마존 등 6개 기관이었다. 태그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기관은 WorldCat과 교보문고 2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개인서재의 공개여부에 관해서는 네이버를 제외한 8개 기관에서 선택할 수 있었다.

실제 서재와 같이 서재에 도서가 진열되어 있는 것처럼 도서 표지 이미지를 제공하는 기관은 RISS와 WorldCat을 제외한 7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른 사용자 서재 영역은 이용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웃들의 책장으로 RISS, WorldCat, 인터파크 도서, 교보문고 등 4개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었다. 유저스토리 북에서는 다른 사용자 서재를 카테고리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도서를 가지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사용자 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사용자들이 이와 관련된 도서를 테마별로 등록했거나 그룹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정보도 광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테마별 서재 영역은 특정 주제별로 사용자들이 추천한 책의 리스트를 보여주는 공간이다. 유저스토리 북과 교보문고, 알라딘, 아마존이 테마별 서재를 제공하고 있다. 사용자가 관심테마나 분야를 키워드로 입력하면 관련된 도서를 검색, 저장할 수 있고, 다른 사용자들이 저장된 도서에 대해 관련 도서 정보를 제시할 수 있다.

넷째, 그룹 서재 영역은 사용자가 그룹을 만들어 그룹 멤버들을 초대해서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장소이다. 유저스토리 북과 아마존 2개 기관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개인정보에 관한 영역은 프로필과 관심분야, 검색결과 저장, 최근활동, 방명록 등의 정보요소로 구성되어 있었다. 관심분야는 관심테마와 유사하나 공유기능이 없이 관심분야에 대한 키워드를 입력하는 공간이다. 최근활동은 내서재에서 이용자 본인이 최근에 리뷰한 도서나 검색한 도서, 최근에 작성한 서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요소이다. 프로필은 분석대상 가운데 5개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방명록은 4개 기관, 최근활동은 2개 기관, 관심분야와 검색결과 저장은 WorldCat 1개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WorldCat은 정보공유보다는 검색결과 정보를 저장하는 특성을 지닌 서비스임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업데이트에 관한 공지사항 영역은 최근 인기책장, 최근 신규책장, 최근 업데이트 사항을 알 수 있는 정보요소를 제공하고 있다. RISS와 유저스토리 북, 인터파크 도서에서 이러한 정보요소를 제공하고 있었다.

일곱째, 공유자 정보 영역은 팔로워, 팔로잉에 관한 정보요소로 구성되어 있었다. 유저스토리 북,

인터파크 도서, 교보문고, 알라딘, 아마존 5개 기관에서 이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다.

여덟째, 시스템 기능 영역은 통계, 외부 서비스와의 연동, 추천 도서 서비스, 서비스 기관 외 자료 등록 정보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통계는 도서를 개인서재에 등록할 때 시작일자와 종료일자를 설정하면 월별로 독서통계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제 분야에 따라서도 독서량에 대한 통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통계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유저스토리과 인터파크 도서, 아마존 3개 기관이었다. 외부 서비스와의 연동은 유저스토리 1개 기관에서만 서비스 되고 있었으며 자동 알고리즘에 따른 맞춤형 추천도서 서비스는 유저스토리과 교보문고, 알라딘에서 제공되고 있었다. 기본서재에 등록할 수 있는 도서가 서비스 기관 외부까지 확장되는 서비스는 유저스토리과 인터파크 도서 2개 기관이었다. 이들 기관은 북마크릿을 통해 이를 제공하고 있다.

IV. 결론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 웹사이트에 최근 도입되기 시작한 서평, 태그를 기반으로 하여 내서재 기능을 소셜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소셜 리딩을 지원하는 국내외 9개 기관의 내서재 서비스 모델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콘텐츠 구성요소와 시스템 기능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서재 서비스를 위한 콘텐츠 영역은 개인서재, 다른 사용자 서재, 테마별 서재, 개인정보, 업데이트 공지, 공유자 정보, 시스템 기능으로 나뉜다.

둘째, 서재의 유형은 개인서재, 다른 사용자 서재, 테마별 서재, 그룹서재 등 4개 서재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개인서재의 하위 카테고리가 설정되어 있다. 6개 기관에서는 '모든 책, 빌려줄 수 있는 책, 메모가 있는 책, 읽고 있는 책, 읽은 책, 읽을 책, 가지고 있는 책, 빌린책, 갖고 싶은 책' 등으로 분류되어 있어 독서현황을 파악하거나 소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콘텐츠 입력정보 항목이 서평, 별점, 태그, 공개여부 설정 기능, 다양한 서평 종류 유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섯째, 도서 표지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RISS와 WorldCat을 제외한 7개 기관에서는 실제 서재에 도서가 진열되어 있는 것처럼 도서 표지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여섯째, 개인정보에 관한 영역은 프로필과 관심분야, 검색결과 저장, 최근활동, 방명록 등의 정보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일곱째, 업데이트에 관한 공지사항 영역은 최근 인기책장, 최근 신규책장, 최근 업데이트 사항을 알 수 있는 정보요소를 제공하고 있다.

여덟째, 공유자 정보 영역은 팔로워, 팔로잉에 관한 정보요소로 구성되어 있었다. 유저스토리 북, 인터파크 도서, 교보문고, 알라딘, 아마존 5개 기관에서 이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다.

아홉째, 시스템 기능 영역은 통계, 외부 서비스와의 연동, 추천 도서 서비스, 서비스 기관 외 자료 등록 정보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도서관 웹사이트에서 책을 매개로 이용자의 정보 생산과 공유를 통한 소셜 리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서재 서비스를 소셜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국내외 기관들의 내서재 서비스 콘텐츠 영역과 시스템 기능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그 유용성을 평가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구중익, 광승진. “차세대 OPAC의 인터페이스와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8권, 제2호(2007. 6), pp.61-88.
- 노동조, 민숙희. “대학도서관 웹사이트 분석을 통한 도서관 2.0 기반 서비스 운영실태 분석.” 정보관리연구, 제 42권, 제4호(2011. 12). pp.195-223.
- 류영호. “세계 전자책 시장 읽기 - 이제 소셜 리딩(Social Reading)에 주목하자.”
<<http://bookerslab.tistory.com/271>> [인용 2013. 4. 1].
- 박윤영, 박혜원. “프레임워크 기반 온라인 서재 시스템의 효율적인 구현 및 품질 평가.” 멀티미디어 학회 논문지, 제13권 제5호(2010. 5), pp.627-640.
- 배경재. “도서관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도서관문화, 제46권, 제12호(2009. 12), pp.46-52.
- 이경민. “대학도서관에서 대학생 독서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3권, 제4호(2012. 12), pp.161-181.
- 이경화. 블로그 서비스가 온라인 구전효과에 미치는 영향 -북로거 유형과 도서 분야별 관여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출판정보, 2005, p.13.
- 정유진, 배국진.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의 동향과 전망. 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2007.
- 최성희. “성인 이용자를 위한 온라인 독서지원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0권, 제4호(2009. 12), pp.61-80.
- Mennella, Allison. *What is “social Reading” and why should libraries care?*, 2011.
<<http://tametheweb.com/2011/06/14/what-is-%E2%80%9Csocial-reading%E2%80%9D-and-why-should-libraries-care-a-ttw-guest-post-by-allison-mennella/>> [cited 2013. 2. 12].

- 교보문고의 북로그. <<http://booklog.kyobobook.co.kr/booklog.do>> [인용 2013. 1. 15].
- 네이버의 내서재. <<http://myshef.naver.com/main.nhn#>> [인용 2013. 3. 21].
- 아마존의 Shelfari. <<http://www.shelfari.com/>> [cited 2013. 1. 15].
- 알라딘의 소셜 북스토어. <<http://store.aladin.co.kr/>> [인용 2013. 1. 31].
- 위키피디아 홈페이지. <<http://en.wikipedia.org/>> [cited 2012. 7. 21].
- 인터파크의 북피니언. <<http://book.interpark.com/blog/diary/kytack1>> [인용 2012. 7. 21].
- Google Books homepage. <<http://books.google.com/>> [cited 2013. 2. 26].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http://www.RISS.kr/mylibrary/MyCabinetMain.do>> [인용 2011. 12. 21].
- 유저스토리 북 홈페이지. <<http://userstorybook.net/>> [인용 2012. 12. 21].
- WorldCat Homepage. <<https://www.worldcat.org/account/?page=myProfile>> [cited 2012. 7. 21].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Jung-Eok Gu, Seung-jin Kwak. "A study on Next Generation OPAC's Interface and Function."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18, No.2(June 2007), pp.61-88.
- Dong-Jo Noh, Sook-Hee Min. "A Study on the State of the Service-based Library 2.0 Through Web Site Analysis of Korean University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Vol.42, No.2(Dec. 2011), pp.195-223.
- Young-ho, Ryu. "Read the e-book market in the world - now, let's focus on Social Reading Social Reading." <<http://bookerslab.tistory.com/271>> [cited 2013. 4. 1].
- Yoon-Young Park, Hae-Won Byun. "Efficient and Quality Evaluation of Online Library System using Framework." *Journal of Korea Multimedia Society*, Vol.19, No.5(May 2010), pp.627-640.
- Kyung-Hwa, Lee. Effects of the Booklog Services upon Word of Mouth Communication - Focus on Booklogger Types and Involvement of Book Area.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Mass communication Major in publishing, 2005.
- Kyung-Jae Bae. "Library and social networking services." *Library Culture*, Vol.46, No.12 (Dec. 2009), pp.46-52.
- Kyung-Min Lee. "Study of Reading Education Methods for University Students in University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43, No.4(Dec. 2012), pp.161-181.

- Yu-jin Jeong-, Guk-jin bae. The trends and Prospects of Social Networking Service (SNS).
Seoul: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2007.
- Sang-Hee Choi. "Online Readers' Advisory Services for Adult Patrons: Analysis on American
Public Libraries' Service Cas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40, No.4(Dec. 2009), pp.61-80.
- Aladin's Social Bookstore. <<http://store.aladin.co.kr/>> [cited 2013. 1. 31].
- Amazon's Shelfari. <<http://www.shelfari.com/>> [cited 2013. 1. 15].
- Interpark's BookPinion. <<http://book.interpark.com/blog/diary/kytack1>> [cited 2012. 7. 21].
- Kyobo Book Booklog. <<http://booklog.kyobobook.co.kr/booklog.do>> [cited 2013. 1. 15].
- Naver's my shelf. <<http://myshelf.naver.com/main.nhn#>> [cited 2013. 3. 21].
- Wikipedia Homepage. <<http://en.wikipedia.org/>> [cited 2012. 7. 21].